



‘묻지마 범죄’를 묻다

문혜민
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강사,
법심리학 박사

최근 강력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. 지난 6월 6일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민이 분리수거를 하러 나가던 중 모르는 남성에게 폭행 당하는 사건¹⁾이 벌어지는가 하면, 7월 21일에는 신림역 4번 출구 근처에서 일어난 30대 남성의 칼부림으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상해를 입은 이른바 ‘신림동 흥기 난동 사건’이 벌어졌다.²⁾

8월 17일에는 30세 남성이 신림동 관악산 생태공원 둘레길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폭행한 후 강간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³⁾이 발생했다. 위의 세 사건은 통칭 ‘묻지

깨트리’는 사건에 사회는 동요하였고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.

실제로 ‘신림동 흥기 난동 사건’이 발생한 이후 한 달 동안 478건의 기사에서 ‘묻지마’라는 용어가 쓰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,⁴⁾ 사건 발생 이전 한 달 동안 ‘묻지마’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기사가 단 4건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사건으로 인한 파장을 짐작해볼 수 있다.

그리고 이 사건은 이후 발생한 칼부림 예고, 성폭력 범죄, 단순 폭행 사건들까지 ‘묻지마 범죄’로 보도되는 것에 큰 영향을 미쳤다.

필요 이상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.

‘묻지마 범죄’라는 명칭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, 내 옆을 지나가는 누구든지 위해를 가할 수 있을 것 같은 막연한 범죄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. 실제로, 흥기 난동 사건이 연달아 발생한 이후로 시민들의 삼단봉이나 가스총 같은 호신용품 구매가 급격히 증가하였다.⁵⁾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, 그 수준이 지나칠 경우에는 비생산적인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.

2022년에 경찰청은 ‘묻지마 범죄’를 ‘이상동기 범죄’라고 명명하고 이에 대해 대응해나가고 있다. 용어가 주는 뉘앙스로 인해 사건의 전형적인 특성이 없는 것처럼 인식되어 진지한 분석 대상이 되지 못해왔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.⁶⁾

그러나 용어가 초래하는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‘묻지마 범죄’라는 용어가 빈번히 활용되는 것으로 보인다.

따라서 이 칼럼은 ‘묻지마 범죄’에 관해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한다. 먼저, 어원학적인 관점에서

1) 노컷뉴스. 2023. 8. 17. ‘분리수거하던 20대 여성 ‘묻지마 폭행’ 블랙박스에’ 출처: <https://www.nocutnews.co.kr/news/5996096>

2) 중앙일보. 2023. 7. 21. ‘신림역 주변 140m 돌아다니며 칼부림... 1명 사망, 3명 부상’ 출처: https://www.chosun.com/national/national_general/2023/07/21/EMTDC04D3VCMFGZYDROJ6UOMHE/?utm_source=naver&utm_medium=referral&utm_campaign=naver-news

3) 서울신문. 2023. 8. 18. ‘대낮 도심 공원에서 ‘묻지마 성폭행’... 피해자 의식불명’ 출처: https://www.seoul.co.kr/news/newsView.php?id=20230818009007&wlog_tag3=naver